



혼돈과 암운의 우리 정치사에서 1년8개월이라는 짧은 영부인 시절을 경험한 윤보선 전대통령의 부인 공덕귀여사의 자서전 '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가 28일 여성신문사에서 출간됐다.

공여사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결혼 전 40세까지는 한국 신학대학 강단에 선 신학자였고, 70년대에는 남편 윤보선 전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재 반대투쟁에 나선 정력적인 활동가였다.

그이는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에서 인도선교사를 꿈꾸던 한 여성신학자가 서른아홉의 나이에 당시 서울 시장이던 정치가 윤보선과 결혼하기까지, 해위의 대통

혼돈을 넘어 '공덕귀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신학자에서 인권운동가까지 역사와 함께 흐른 삶 서술

령 취임식으로부터 하야에 이르는 과정, 군사정권 아래에서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 문제에 눈을 뜨고 수많은 시국사건에 참여하게 된 동기, 80년대 교회연합활동의 장에서 경험한 신앙과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잔잔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총 5장, 12편으로 짜여졌다. 첫장은 공여사 자신의 이야기로 〈믿음의 여장부 어머니 슬하에서〉, 〈잊지 못할 여학교 시절〉, 〈선교사를 꿈꾸며〉로 구성돼 있고, 둘째장은 정치인의 아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결혼 생활 피난생활〉, 〈정치인의 아내가 되어〉, 〈정치는 곧두 박질하고〉 등으로 구성됐다.

세째장은 그의 삶을 영부인으로서 보다는 인권운동가로 새롭게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을 그리고 있는 〈공적활동에 나서다〉, 〈형제들이여 다시

는〉,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에서〉, 〈전디다 못해 일어난



윤보선 전대통령 부인 공덕귀 여사 자서전 펴내

여성노동자들로 얹어졌고, 네째장은 교회사에 그 자취가 뚜렷한 여성신학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하나되는 교회를 꿈꾸며〉, 〈살며 사랑하며〉 등

과 마지막으로 후배들이 찾아가 만나본 공덕귀 여사를 정리한 〈공덕귀를 말한다〉로 구성됐다.

공덕귀 여사 약력

1911년 4월 21일 경남 충무에서 출생

독립군이던 아버지를 일찍 사별하고 여장부 어머니에게서 기독교 신앙과 독립심 강한 여성상을 배웠음

일신고등학교, 일본 요코하마신학교에서 수학, 일제 식민치하에서 두번 일제 경찰에 의한 연행, 고문을 받고 풀려남

1948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할 준비를 마쳤으나, 주위의 간곡한 권유로 당시 서울시장이던 윤보선과 결혼

4.19혁명 후 정국에서 남편 해위가 대한민국 제 4대 대통령에 취임 우리 역사에 참된 민주주의를 꽃피

울 절호의 기회에 5.16 군사쿠데타로 해위의 대통령직 하야

이후 1970년대를 시작으로 교회일치, 인권회복과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활발히 참여함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순교자 기념사업회, 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3.1사건 가족대책협의회, 양심범 가족협의회 등에서 활동

1983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협의회 여성분과 위원장, 교회일치, 평화, 통일을 위한 민족의 어머니 운동을 이끔

1992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결성에 참여하고 이듬해 생애소원이던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함.